

# Could a Brand New Asia be led by Asia?

아시아가 주도하는 새로운 아시아는 가능한가

주최 한겨레통일문화재단 부산광역시  
주관 한겨레평화연구소 KMI 연극해양수산개발원  
후원 한겨레신문사 부산광역시교육청

November 19 & 20, 2014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그랜드볼룸  
Grand Ballroom, Paradise Hotel Busan

## 초대합니다

한겨레통일문화재단과 부산광역시가 오는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제10회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특히 올해는 부산광역시와 한겨레통일문화재단이 지난 2005년 APEC 부산 행사를 계기로 국제심포지엄을 시작한 지 꼭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10회째를 맞는 올해에는 '아시아가 주도하는 새로운 아시아는 가능한가'라는 깊이 있는 주제를 통해 심포지엄의 담론 수준을 더한층 발전시키려 합니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는 '갈등이 높아지는 아시아, 어떻게 평화 질서를 만들 것인가'라는 기조연설에서 자신의 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의 우경화 노선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동북아 평화발전의 길, 의(義)로써 화(和)를 이루자'라는 특별연설을 통해 아시아의 새 질서는 의롭고 올바른 방향 위에 터잡아야 함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첫째날 오후 세션에서는 이런 큰 원칙을 실천할 구체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제1세션에서는 역사적·담론적 관점에서 '동아시아 100년의 평화사상'을 조명함으로써 새로운 질서의 평화적 기본 이념을 찾아나설 것입니다. 이어지는 제2세션에서는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 긴장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한국의 역할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를 고찰할 것입니다.

둘째날 제3세션에서는 '극동의 바다,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동해에서 벌어지는 각국의 갈등 요소들을 어떻게 새로운 아시아라는 질서 틀로 평화적으로 묶어낼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마지막 제4세션은 고등학생부터 대학생, 청년들의 UCC 공모전입니다. 이를 통해 젊은 층이 기대하는 평화도시 부산은 어떤 모습인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에 부디 참석하셔서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장 임 동 원 부산광역시장 서 병 수

## PROGRAM

### 첫째날 19 수요일

개막식	09:30~10:00	개회사 환영사 축사	임동원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장 서병수 부산광역시장 정영무 한겨레신문사 대표이사 이해동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기조연설	10:00~10:30		<b>갈등이 높아지는 아시아, 어떻게 평화 질서를 만들 것인가?</b>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총리
특별연설	10:30~11:00		<b>동북아 평화발전의 길, 의(義)로써 화(和)를 이루자</b> 정의화 대한민국 국회의장
원탁토론	11:00~12:00	사회 토론	문정인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이정호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오찬	12:00~13:30		
제1세션	13:30~15:30	사회 발표	<b>역사적·담론적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100년의 평화사상</b> 안철현 경성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b>동아시아 대분단체제 극복과 한반도의 역할</b> 이상성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 <b>대안적 평화사상과 미래 아시아에서의 일본의 역할</b> 카와사키 아키라 피스보트 공동대표 <b>중국 평화담론의 진화와 동아시아 평화</b> 장지엔리 중국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교수
		토론	프지 메구루 전 일본 중의원 권혁수 중국 라오닝대학교 역사학원 교수 이찬우 일본 데이쿄대학교 교수 이철호 부산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제2세션	16:00~18:00	사회 발표	<b>동북아의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과 한국의 역할</b> 이수훈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b>미군의 전진배치 실태와 동북아의 평화</b>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일본 평화활동가 <b>중일관계 악화의 원인과 향후 전망</b> 꾸이용타오 베이징대학교 국제관계학원 교수 <b>남북한간의 군사적 협력은 불가능한가</b>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
		토론	류밍 상하이사회과학원 국제문제연구소장 카와카미 다카시 일본 다쿠쇼쿠대학교 교수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둘째날 20 목요일

개회식	09:30~10:00	개회사 환영사 축사	김성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정석규 한겨레신문사 편집인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제3세션	10:10~12:30	사회 발표	<b>환동해-극동의 바다, 도전과 과제</b> 전준수 서강대학교 부총장 <b>러시아의 북극해 및 극동개발 전략</b> 알렉산더 고류노프 러시아 경제연구소 부소장 <b>중국 동북3성 지역의 경제개발 전략과 해양</b> 현동일 연변대학교 동북아연구소 교수 <b>환동해 권역 발전 비전과 일본의 환동해지역 발전전략</b> 미무라 미츠히로 환일본해경제연구소 연구위원 <b>환동해 물류시장 구조 변화와 협력방안</b> 이성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연구실 실장
		토론	슈빈 중국 해양대학교 일본연구소장 서병규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장영수 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 교수 최치국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원 김영윤 (사)남북물류포럼 회장
오찬	12:30~14:00		
4세션	14:00~16:30	최우수상 우수상	<b>부산을 국제 평화의 도시로-고등학생, 청년, 대학생 UCC 공모전</b> 국회의장상 통일부장관상, 부산광역시장상, 부산광역시의회회장상, 부산광역시교육감상,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장상, 한겨레신문사장상.

## GUIDE

### 등록 및 안내

- 참가자 등록**
- 청중 참여는 무료이지만 자리가 제한되어 있어 선착순 사전등록을 받습니다. 한겨레통일문화재단 busansympo@gmail.com, 02-706-6008로 이름, 연락처, 희망 세션을 알려주십시오.
- 공지사항**
- 국내외 참가자들은 11월 19일 오전 9시부터 회의장인 파라다이스부산 그랜드볼룸에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심포지엄은 동시통역으로 진행됩니다.
- 문의**
- 서울 사무국 (02-750)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16-25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전화 02-706-6008 | 이메일 busansympo@gmail.com
- 회의장**
-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그랜드볼룸 (612-010)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408-5 전화 051-742-2121 팩스 051-742-2100 | 이메일 welcome@paradisehotel.co.kr
- 교통안내**
- 전철편 지하철 2호선 해운대역 3번/5번 출구, 해운대 해수욕장 방면 도보 10분  
버스편 200번, 100번, 141번, 139번, 해운대온천 사거리 하차, 해운대 해수욕장 입구 방면 도보 6분

